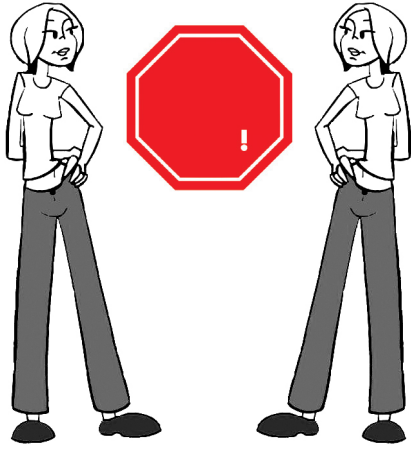


● ● ●
청 소 년
동 성 애 자
인 권 을 위 한
교 사 지 침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지침서

목 차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지침서를 발간하며

동성애 바로알기

동성애란?

게이/레즈비언/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란?

호모/이반/퀴어는 무슨 뜻인가요?

커밍아웃과 아웃팅은 무엇인가요?

호모포비아(Homophobia)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동성애에 관련된 법이나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동성애와 에이즈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청소년과 동성애

청소년 동성애자가 우리 사회에 실제로 있나요?

동성애를 다룬 매체를 접하면 동성애자가 되지는 않나요?


우정과 사랑을 혼동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자 같은' 남학생, '남자 같은' 여학생은 동성애자일까요?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이성애자가 될 수는 없나요?

청소년기의 성적 정체성 억압은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학생을 위해서라면 이성애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 아닐까요?



지침서,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 + 열린 마음으로 지침서를 읽어주세요.
- + 동성애에 대해 정확히 알고, 편견을 갖지 말아주세요.
- + 동성애자 청소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 + 지침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적극 활용해주세요.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지침

- 이성애와 동성애는 '차이'일 뿐 '차별'되어서는 안돼요.
-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태도는 삼가주세요.
- 학생들에게 이런 표현은 반드시 삼가주세요.
- 학생이 커밍아웃을 했을 때에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 동성애자 학생을 아웃팅시키지 말아주세요.
- 학생이 아웃팅당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 동성애자 친구에게 집단 따돌림 등 폭력을 가하는 학생들을 지도해주세요.
- 학생들이 동성애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그 자리에서 지적해주세요.
- 동성과 사귀는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해주세요.
-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동성애자 학생들을 편견 없이 대해주세요.

청소년 동성애자 상담지침

- <부록> 참고 인터넷사이트
- <부록> 참고도서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 지침서를 발간하며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지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동성애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든, 이 사회에 동성애자가 함께 살고 있다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성애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문제가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소년과 동성애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금기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성애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것이거나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존재, 탈선한 존재라는 생각도 만연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민감한 시기에 성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맞닥뜨리는 청소년들은 슬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교실에서 역시 동성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거나 부정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단지 ‘차이’일 뿐입니다. 학교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한다면 동성애자 학생들은 교육에 대해 반감을 품고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동성애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성애자 청소년들에게도 올바른 교육일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다양성이 공존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며 또한 가장 큰 영향 받는 곳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학교환경 속에서 동성애자 학생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이 성적 정체성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스스로의 성적 정체성으로 인한 방향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다름'을 스스로 긍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애자 학생들 역시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동성애자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학교, 특히 선생님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성애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 동성애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실천방법을 제공하고자 본 교사 지침서를 발간합니다. 본 지침서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동성애-이성애 평등교육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다름'으로 더욱 풍부한 삶을 함께 만드는 세상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11월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박강석

박 강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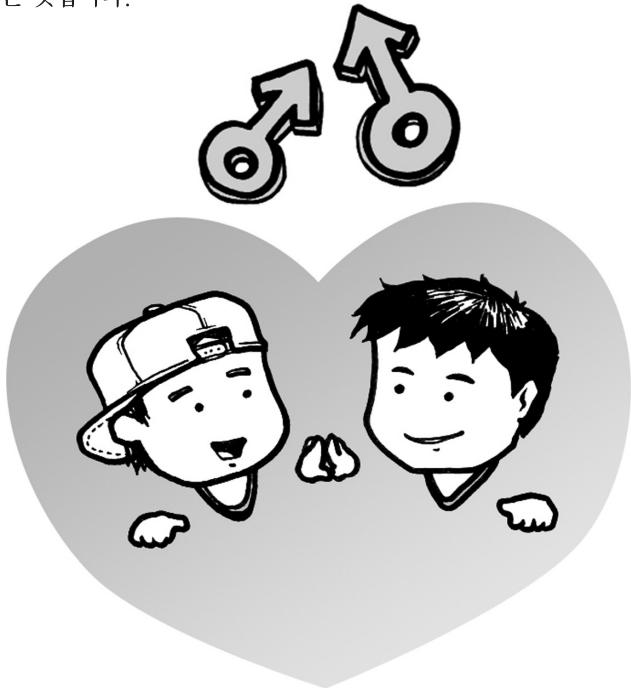
● 저 소 녀
● 동 성 애
● 인 권 으 리
● 고 사 지 점

동성애 바로 알기

동성애란?

동성애는 말 그대로 동성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으로서 여성을, 남성으로서 남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정서적으로 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애적으로도 끌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자들이 자신과 다른 성별에게 이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렇듯 동성애란 동성에게 어느 정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정서적으로, 성애적으로 끌리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입니다. 이는 일시적이거나 단순한 취향에 의한 동성 간 성적 행위(sexual behavior)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내면적인 성적 지향 없이 단지 성적 행위만을 하는 것은 동성애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게이 / 레즈비언 / 바이섹슈얼 / 트랜스젠더란 ?

게이(gay)란 동성애자들
에게 덧씌워진 어두운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자 '기쁨'이라는 의미
를 사용하면서부터
동성애자들을 지칭하
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습
니다.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
하는 말로 쓰이며 서구에서는 남녀 동성애자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
니다.



레즈비언(lesbian)은 여성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여류시인 사
포가 여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섬의 이름인 '레스보스(Lesbos)'에서 유래된 단어
입니다.

바이섹슈얼(bisexual)은 특정한 한 성별에게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
게 성적 지향을 지닌 사람, 즉 양성애자를 뜻합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란 자기가 타고난 육체적 성(생물학적 성)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성전환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생물학적 여성
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호모 / 이반 / 퀴어는 무슨 뜻인가요?

호모(homo)는 19세기 중반 이후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등장한 병리학적 용어 'homosexual'의 줄임말입니다. 원래는 동성애를 종교적,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의미로 쓰이던 소도미, 남색 등을 대신하여 사용된 의학적인 용어였지만 점차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반은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로써 성적 소수자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二般' 또는 '異般'이라고 하며, 이성애를 '일반(一般)'적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하여 '이반(二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퀴어(queer)란 성적 소수자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퀴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89년 미국에서 퀴어네이션(Queer nation)이라는 급진적인 단체가 결성되면서부터입니다. 퀴어는 '이상한, 비정상적인, 별종스러운'이라는 의미의 단어이지만, 퀴어네이션은 이를 정치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이성애 사회로 편입되려는 시민권 전략에 반대하며 경멸의 시선을 내포한 속어를 전면에 내세워 정치화함으로써 애써 짐작은 척하는 동성애자들의 위선을 꼬집고자 했던 것이지요. 퀴어네이션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다양한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 다양한 성적 소수자들을 아우르는 말로 '퀴어라는 용어를 제안했던 것입니다(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도에서 쓰이기 시작한 용어인 만큼,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커밍아웃과 아웃팅은 무엇인가요?

커밍아웃(coming out)은 동성애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coming out of closet'에서 유래된 말로, '벽장 속에서 나옴'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둠 속에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당히 인

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내보이는 것입니다. 타인의 강요나 폭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나는 동성애자이다'라고 알리는 것이 바로 커밍아웃입니다.

아웃팅(outing)이란 주체적으로 자신이 성적 소수자임을 긍정하고 외부에 알리는 커밍아웃과는 반대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자신이 성적 소수자임이 밝혀지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에서는 유명 인사들이 동성애자임을 폭로하는 동성애자 인권 운동 방식의 하나로 아웃팅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사회의 수많은 억압과 차별, 심리적? 물리적 폭력을 겪어야 하는 많은 동성애자들은 아웃팅을 범죄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누구누구가 동성애자라더라'라는 말을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퍼뜨려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집단 따돌림이나 각종 폭력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학생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교사가 학부모에게 '당신의 자녀는 동성애자라고 알리는 것 역시 아웃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모포비아(Homophobia)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동성애 공포증(동성애 혐오증)란 뜻으로,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해 거부감, 혐오, 두려움 등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혐오나 공포는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통념과 편견에 의해 막연한 반감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호모포비아는 직접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징그럽다, 더럽다, 소름 끼친다' 등의 동성애에 대한 감정적 공포나 혐오

도 포함합니다. 동

성애자들은

이러한 말

과 행동 때

문에 심리

적 상처를 받

기도 하고 심지

어는 물리적 폭력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

다.



동성애에 관련된 법이나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평등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성욕의 하나로 규정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11조), 표현의 자유(21조)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 있는 '동성애'가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삭제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함"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

해외의 경우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하거나 동성 커플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등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하였으며 동성 부부의 입양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 버몬트 주의 시민연대(Civil Union)나 유럽 여러 국가에서 채택한 동성 파트너십 등록제는 동성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을 따로 제정하여 사실상 이성간의 혼인법과 거의 유사하게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파스법(PACS 시민연대협약)처럼 성이나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성인 동거 커플에게 기혼자와 동등한 재정적, 사회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결혼한 이성애자 중심의 제도를 허물고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을 가능케 한 경위도 있습니다.

동성애와 에이즈는?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HIV(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면역 기능이 상당히 떨어졌을 때 발병합니다. HIV는 보통 혈액이나 정액, 질 분비물 등 체액으로 전파되며 감염된 혈액의 수혈이나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등을 통해서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즉 HIV는 동성애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 HIV에 감염되었다고 해도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이즈는 '천형'이 아니라 간염 등과 마찬가지로 전염성을 가지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동성애

청소년 동성애자가 우리 사회에 실제로 있나요?

청소년 동성애자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청소년기는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청소년 동성애자가 없다고 한다면 청소년기에는 이성애자도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청소년들 역시 정서적? 성적인 이끌림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인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성적 정체성이 분화되어 각각 동성애자로, 이성애자로 그리고 양성애자로 살아가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이 시기는 자아정체성(e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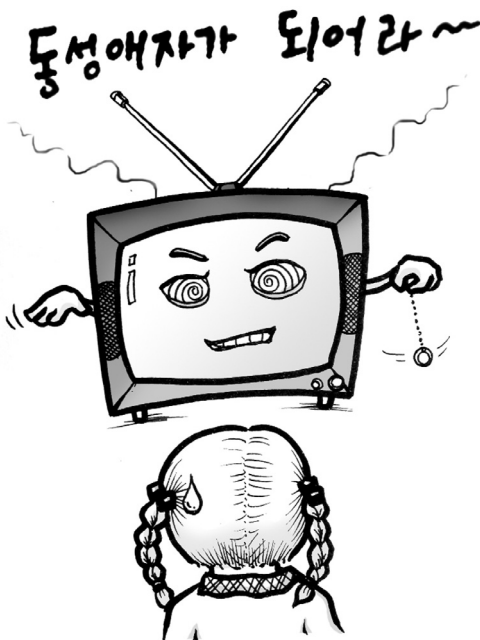
identity)과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을 확립하는 시기여서 청소년 동성애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이성애만이 옳고 정상적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상대적으로 동성애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금기의 영역으로 철저하게 가려지고 부정당하며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에 관해 올바르게 배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탐색하고 인지하면서 확립하는 과정은 몹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장애물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다른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등 내, 외적으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성적 환타지와 자위행위 그리고 성행위인데 이런 것이 비정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애자 청소년들도 이런 것을 통해 자신이 이성에게 사랑과 애정을 느낀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이성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동성애자 또한 같은 발달과정을 밟아나가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있어 진정한 자아정체성의 확립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정체성을 자신의 내면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동성애자에게는 '동성애자로서의 나'로 자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 즉 전 생애가 동성애자로 연속되고 일관되는 것임

동성애를 다룬 매체를 접하면 동성애자가 되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애자 청소년의 경우 동성애 매체를 접한다 하더라도 결코 동성애자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동성애자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확고히 인지하고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유익한 매체가 됩니다.



청소년 동성애자는 성장하면서 동성에게 정서적인 이끌림, 성적 매력을 느끼고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TV, 신문, 라디오 등의 언론과 동성애 책자, 잡지, 영화, 연극 등의 문화예술 매체를 통해 동성애자

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확립하게 됩니다. 이성애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동성애의 존재와 그 의미 그리고 동성애적 인간관계를 알게 되어 우리사회의 성적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학부모와 선생님들은 '동성애는 전염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오해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동성애 매체를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 포르노와 같은 이성애 매체에 노출되어 감염된다면 이들은 청소년기가 지나 모두 이성애자로 바뀌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가 사라지지 않고 청소년 동성애자가 성인 동성애자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현상은 매체에 의해 성적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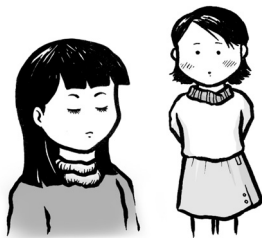
따라서 동성애에 대해 편견과 오해를 넘어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 지식을 갖추고 매체를 살펴보며 어떻게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을지 모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하여 청소년 동성애자에게는 지지와 격려로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애자 청소년에게는 성적 정체성의 다양성과 동성애자의 인권 그리고 차이에 대한 톨레랑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사회는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서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정과 사랑을 혼동하는 것은 아닐까요?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있어 우정과 사랑은 명확합니다. 즉 우정은 말 그대로 이성친구이든 동성친구이든 둘의 관계가 정서적 친구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정과 여러 차원에서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정서적으로(emotion), 애정적으로(romance), 그리고 성적으로(sexual) 매력을 느끼고 이끌리는 것입니다. 동성애 대하여 이 세 가지 차원들이 모두 합해져서 이뤄지는 총체적 인간관계 또는 애정관계가 동성애적 사랑입니다. 또한 동성애는 일시적이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처럼 우정과 사랑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성적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에 대해 우정을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의 감정을 성찰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 애를 좋아하나?



부모님과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가 애인을 사귀고 있다면 많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둘의 관계를 축하해주고 행복을 기원해주세요. 그러면 청소년 동성애자는 정서적으로 더욱더 안정되고 평온해지며 자아존중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이성애자가 될 수는 없나요?

청소년 동성애자가 정신과적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이성애자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런 치료를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상담이나 치료로 성적 정체성을 바꾸려는 것을 전환치료(conversion or reparative therapy)라고 부릅니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부모님들은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신과치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정신의학회는 동성애가 정신장애도 아니고 행동장애도 아닌 정상적 성적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회는 성적 정체성은 본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어서 동성애자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것이므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 없음을 강조하고 이런 치료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 하에 미국정신의학회는 1973년 정신질환목록(DSM-II)에서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심리학회에서도 1975년에 이러한 삭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이 학회는 동성애적 성적 정체성 그 자체로는 판단능력, 안정성, 신뢰성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능력에 전혀 손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 동성애는 절대로 정신질환이 아님을 우리 사회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인권차원에서 전환치료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나 사회는 절대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간섭할 수도 없고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강제적으로 상담이나 치료를 시도하지 말고 오히려 이들이 받는 사회심리적 고통을 헤아려 지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율이 이성애자 청소년의 경우 2.2%에 그친 반면 청소년 동성애자는 무려 9.4%로 그 심각성이 매우 높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동성애자는 정체성의 혼란기, 인식기, 저항기를 거치면서 혼란스러움, 고립감, 자아부정, 고통, 화, 피로움을 느낍니다. 자신을 혐오하고 심할 경우에는 역겨움을 느끼고 몸까지 아프게 되는 신체화증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정, 직장, 학교에서는 늘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하고, 드러낼 경우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어긋나게 되고 이중생활을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가중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청소년 동성애자를 위협에 빠뜨리는 여러 요인들과 그 메커니즘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희망의 끈을 연결해주어 다시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자살을 시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학생을 위해서라면 이성애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 아닐까요?

이성애 중심적인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이성애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며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이성애자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적이고 표면적인 조건들로만 판단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성애는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형성되는 성적 지향이며, 상담이나 정신 치료 등으로 이성애로 전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적 정체성을 억압하거나 전환시키려는 시도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긍정할 수 없게 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 위협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이성애 중심으로 제도화 되어있다고 해서 그 틀에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끼워 맞추려 하는 것은 사회와 제도 자체의 모순과 잘못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간과한 채 무조건적인 순응만을 강요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은 이성애자들에게 보장된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솔직한 내면과 욕구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를 바꾸어 나가고자하는 실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와 이성애가 평등한 것이 될 때 비로소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방황과 혼란을 벗어나 스스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러한 자아 확립의 과정을 지지해 주고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보다 나은 미래, 보다 평등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진정 올바른 교육일 것입니다.

- 참고문헌

여기동 (2004), 한국 남성의 동성애 성적체성 발달과정과 정신건강문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집필: 여기동 (정신과 간호사,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회원)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동성애에 대한 선생님 자신의 입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 나는 동성애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을까?
- 동성애를 아주 부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 나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보호하는 데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 만약 친구, 형제, 자식, 배우자와 같이 가까운 친지가 나에게 커밍아웃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 (동성애자 선생님인 경우) 나는 동성애자인데 학교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동성애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는 꼭 필요합니다.

- 동성애 관련 인터넷 사이트? 단체? 상담소를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참고할 만한 문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미나를 꾸리거나 참가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직접 동성애자와 대화와 토론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동성애자 단체나 각종 인권 단체에서 주최하는 동성애 관련 토론회, 교사 간담회 등 행사에 참여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동성애를 다룬 영화나 소설 등 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생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마주칠 수 있는 동성애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 수업 내용 중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까?
- 학생이 동성애에 관해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까?



-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이슈화되었을 때 어떻게 언급할 수 있을까?
- 동성애를 주제로 제량수업이나 인권수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 어떻게 할까?
- 학생이 성적 정체성에 관한 상담을 요청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동성애자 학생이 커밍아웃하거나 아웃팅되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 동성애에 관한 언급 때문에 동료 교사들과 마찰을 빚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동성애에 관한 수업을 진행했다가 질책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진지하고 열린 자세가 중요합니다.

- 이성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을 지양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학생들이 성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기에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열린 생각이 필요합니다.
-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 동성애에 관해 언급할 때 흥미위주나 가벼운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 성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학생이나 동성애자 학생의 학부모들이 알고 고민하는 것과 모르고 고민하는 것은 그 과정이나 결과, 후유증에 있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집필: 정연희(한세전산고등학교 교사, YMCA 성교육교사회 회원,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 성행동의 심리학 강사)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지침

이성애와 동성애는 ‘차이’일 뿐 ‘차별’되어서는 안돼요.



성적 정체성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적, 낭만적, 애정적, 성적 이끌림을 말합니다. 성적 정체성은 한

사람의 평생에 걸쳐 발달합니다. 한번

정했다고 해서 영원히 고착되는 것도 아니고 성적 행동이 성적 정체성과 꼭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동성애적인 지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동성애에게만 매력을 느끼거나 동성과만 성적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이성애적 지향이 강하게 있다고 해서 항상 이성애고만 성적 접촉을 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적 정체성은 그것이 이성애적 정체성이건 동성애적 정체성이건 극히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사랑의 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에는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 등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성애 정체성은 단지 이성애 정체성과 조금 다른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무지, 부정, 멸시, 혐오의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각종 정신적, 육체적 폭력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학교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먼저 '차이' 때문에 '차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다양성이 공존하는 발전적인 사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인식시켜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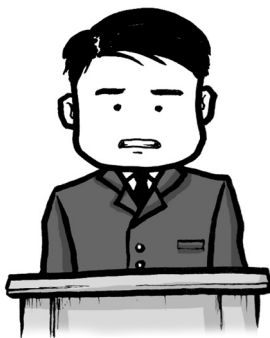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애주의적인 편견을 버리고 성적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교사 자신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이성이나 동성이나 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성적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단지 성적 지향만 다를 뿐 존엄성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이성애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균형 있는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 발달을 꾀할 수 있을 것이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역시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성적 지향은 성별이나 피부색같이 '차이' 일 뿐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차이'들이 인정되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이성애와 동성애의 평등 교육이 필요합니다.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태도는 삼가주세요.

은... 생각만 해도 징그럽구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드러내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나 표현은 느낌으로 바로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학생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되고, 이성애자 학생들에게는 동성애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반감을 갖게 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

던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일은 노력에 의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본성을 부정하고 차별받게 되면 청소년 동성애자는 소외감과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더욱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적 정체성을 편견 없이 이해해주고 자신의 고민을 귀담아 들어주는 교사가 있다면 심리적인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교사 자신의 종교적인 이유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을 경우에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나 교실에 동성애가 있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행동한다거나 동성애자로 드러난 학생을 꺼리고 멀리하는 일은 동성애자 학생과 이성애자 학생 모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그 학생이 동성애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여학생이 아주 짧은 머리 또는 칼머리를 하거나 힙합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행동하거나 입을 가리고 웃는다고 해서,

즉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학생을 비난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동성애가 질병(성병이나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이따금 교사가 던지는 노골적인 (또는 무심코 나온) 동성애 혐오의 말에 많은 상처를 받으며 이에 동조하는 학생들의 반응에 더욱 더 위축되고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군대에서의 경험이나 어렸을 때 당했던 동성애에 의한 성폭력, 또는 동성애자 친구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다는 등, 성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옳지 못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군대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성폭력이 거의 대부분 이성애자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성애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동성애자라는 등의 잘못된 생각들을 진실인 것처럼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오해와 편견들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성애자 학생들에게 "그런 건 일시적인 것이니까 안심해라", "한 때 다 그럴 수 있다", "아직 남자/여자를 안 사귀어봐서 그럴 것이다" 등의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학생 스스로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지속적인 감정인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훨씬 학생에게 유익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표현은 반드시 삼가주세요.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란하다", "최악이다", "호모다", "비정상이다", "정신병이다", "변태다", "더럽다", "에이즈의 주범이다" 라는 표현은 동성애를 비하하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말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동성애자 학생들에게는 크나큰 상처를 주고, 이성애자 학생들에게도 성적 정체성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합니다.



'호모'는 보통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므로 동성애자, 레즈비언, 게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성연애'도 이성연애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의 사랑에 대해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동성애'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범'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의 발병원인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은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으며, 수혈, 혈액제제, 정액, 질 분비물을 통해 누구나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범이라는 오해를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성교제', '남녀 한 쌍' 등 동성애를 배제한 이성애 중심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을 지칭할 때 여학생에게는 무조건 '남자친구'라는 말을, 남학생에게는 무조건 '여자친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올바른 용어들을 알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단어들을 쓰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정확하고 올바른 뜻을 설명해준다면, 동성애자 학생들의 상처를 줄일 수 있고 모든 학생들이 발전적인 사고와 태도를 지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이 커밍아웃을 했을 때에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커밍아웃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자기 자신, 친구, 가족, 동료에게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이성애 중심적인 세상에 대하여 도전하는 힘겨운 싸움입니다. 이 사회의 편견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음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선
남자를
조용히
해요 :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공유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동성애자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거부당하고 배척받을까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했을 경우 지지? 공감하고 수용해주는 환경을 제공해준다면 동성애자 학생은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신

의 삶을 보다 자신감 있고 긍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성애자 학생이 선생님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에는 따뜻한 격려와 진심어린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이 사회에서 학생이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커밍아웃을 했을 경우, 그 학생들도 커밍아웃한 친구의 성적 정체성과 당당함을 긍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십시오. 또 보호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길이 동성애자 제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 학생을 아웃팅시키지 말아주세요.

아웃팅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성적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아웃팅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이나 범죄가 되는 이유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팽배해 있고 보수적으로 경직된 학교 분위기에서 아웃팅당한 학생

에 대한 별다른 대안 없이 처벌, 퇴학이나 협박, 집단따돌림,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다시 아웃팅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하거나, 돈을 뺏거나, 심지어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어느 학생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별다른 생각 없이 동료교사나 담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은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리는 상대가 설사 동성애를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동성애자 학생 본인은 원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때문에 비밀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그것 역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웃팅인 것입니다. 동성애자 학생이 스스로 간신히 용기를 내어 밝힌 경우에도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학교의 징계 등으로 인해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생 본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고 보호자도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해놓고 연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의 보호자로서는 아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이후 보호자가 지낼 태도는 볼 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개하고, 죄책감을 가지며, 학교에 가서는 죄인 취급당하며 사죄하고, 학생을 전학 또는 유학을 보내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가장 상처를 덜 입고 긍정적으로 학생의 성적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 비우호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에서 아웃팅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적 정체성이 동성애자라고 드러내는 그 순간, 우리는 친구도 가족도 직장도 미래도 목숨도 잃게 됩니다." 라는 동성애자의 항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 아웃팅당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동성애자임이 알려지는 것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어떤 학생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무심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그 소문은 삼시간에 퍼져나가 모든 급우들이나 다른 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려지기가 쉽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면 별다른 문제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집단적으로 그 학생이 동성애자라는 얘기를 다른 이들에게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학생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과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집에 알려졌을 경우 가정에서의 어려움까지 겪게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아웃팅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웃팅된 경위를 밝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웃팅이 동성애자 학생에게 매우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고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하며 각종 폭력에 노출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아웃팅한 것이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어야 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라는 등의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놀림, 따돌림, 폭행, 헐박 등을 하는 것이 동성애자 학생에게 심각한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매우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웃팅 이후 혹시 동성애자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폭력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동성애자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관찰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자 친구에게 집단 따돌림 등 폭력을 가하는 학생들을 지도해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동성에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거부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여학생의 경우 무시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냥 보아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노골적으로 따돌리기도 합니다. 남학생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동성애자는 학교에서 발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노출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임이 드러난 학생들은 '왕따', '은따(은근히 따돌림)' 등을 당하거나 위협적인 행동,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을 당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학생이 자아 존중감이 낮고 가족 구성원이나 학교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 다른 학생들의 폭력은 가중되기 쉽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교사에게 노출될 정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대개는 또래집단 사이에서 암암리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웃팅된, 혹은 커밍아웃한 친구를 피하거나 경멸, 왕따 등 각종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곧바로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동성애자 역시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단지 사랑하는 대상이 동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주지시켜주십시오. 동성애를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남학교에서는 반 학생 몇몇이 유난히 ‘여성스러운’ 남학생에게 집단적으로 바지를 벗겨 확인해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학생 동성애자의 경우도 이러한 폭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담임교사가 잘 수습을 하여 그 학생은 무사히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교 학생들이 그 학생을 놀릴 경우 반 전체가 단합하여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남학생은 담임교사와 급우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 자신이 사회적으로 강제하는 성역할을 제대로 내보이지 못하다고 해서 자신에 대한 비하감이나 죄의식을 갖지 않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폭력에는 반드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동성애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그 자리에서 지적해주세요.

학생들이 동성애에 대해 비하하고 혐오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지적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애를 비하하는 표현은 교실에 있을지 모르는 동성애자에게 커다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동성애가 비정상적인 것이나 꺼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태도가 자신의 사고를 편협하게 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동성애에 대해 "재수 없어요", "번태예요"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 남학생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겉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단호합니다.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고 동성애가 에이즈를 발생시킨다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하고, 동성간의 애정을 다룬 영화를 본 경우에도 과장되게 혐오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난히 자신의 '남성다움'을 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남학생이 선동하면 대다수 남학생들은 자신도 동성애자라고 볼까봐, '남성성'을 의심받고 '사내답지' 못하다고 볼까봐 그들의 말과 행동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비하나 혐오는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성애자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을까, 성폭력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갖거나 남학생의 경우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익숙하지 않은 감정에 사로잡혀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포감이나 낯섦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

를 제공하여 동성애자 역시 가까운 주변의 가족이고 친구일 수 있으며 동성애
가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
다.

동성과 사귀는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해주세요.

학생이 동성과 사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기에 이성애자 학생들이 이성과 교제하면서 사랑의 감정과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것과 똑같이 동성과 사귀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과 사귀는 학생들을 이상하게 바라본다거나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동성애자 학생들에 대한 이해 없이 동성과 사귀었다고 무턱대고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거나 집에 알린다면 그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과 사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이성과 사귀는 학생들에게 처럼 똑같이 대해주고 서로가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동성애자가 동성과 사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태도와 그 학생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긍정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사귀어요.'라고 이야기하는 키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동성과 사귀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각 상황에 따라 선생님들이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이해해 준다면 학생들이 발전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학부모가 자식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칭찬벽력과 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어떤 이유로 동성애자가 되었는지 거듭해서 생각해보기도 하고, 혹시나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동성애자로 살아간다면 무척이나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이성애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온갖 노력을 하고, 폭력을 가해보기도 하며 정신과치료, 진학, 유학 등의 방법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동성애 청소년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커밍아웃을 하려는 것은 이미 이런 점들을 예상해 보고, 가장 가슴아파할 것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렇게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자녀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전히 자식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받아들여려 해봅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소환되었던 학부형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면서도 딸을 이해하기 위해 세미나에 참석하고 동성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려고 노력한다면 자녀의 삶에 훌륭한 심리적 지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에게 동성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동성애 관련 상담센터나 단체를 안내해 주는 등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녀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동성애가 결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십시오.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정신적 혼란을 느끼는 학부모님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 학생들을 편견 없이 대해주세요.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미성년이라는 상황에서 성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혹시 눈치챌까봐 조마조마해 하고, 아직 커밍아웃할 준비가 안 되어 성적 정체성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가짜 이성친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터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당당하게 긍정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같은 동성



애자 친구들을 만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고민을 나누고 정서적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또 동성애자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할 것인지, 가족과 친구들과는 어떻게 잘 관계맺음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수많은 갈등 속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며 스스로의 앞날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성애자 학생들을 이상하고 어딘가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보면서 꺼려하거나 많이 다른 학생이라고 여기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면, 이들은 학교생활에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자연스럽게 대해준다면 동성애자 학생들에게는 큰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성애자라고 해서 특별히 대해 주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 없는 격려가 때로는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성애자 학생들을 편견 없이 대해주시시오.

집필: 정연희(한세전산고등학교 교사, YMCA 성교육교사회 회원,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 성행동의 심리학 강사)

- 청소년 동성애자 상담지침
- 소성애자 상담지침
- 청소년 자학지침

청소년 동성애자 상담지침



상담이란 기본적으로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치유적 관계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

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갖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성애자인 대부분의 교사들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미 이성애적인 관점으로 동성애를 얘기하기 쉬워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일선 상담자들은 성적 정체성 상담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성적 정체성의 발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며 부정적인 시각을 무의식속에서 이미 갖고 있고 동성애를 이성애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담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상담자들은 우선 성적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을 밑바탕으로 상담이론이나 기법에 상관없이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지지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힘을 갖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일반상담의 원리와 기법을 참고로 동성애 상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1) 내담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1.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편안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될 때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는 힘과 자기를 노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거의 없는 현실에 내적인 지지체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담자는 동성애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내담자가 스스로 지지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내적인 지지체계가 부족한 청소년 동성애자일수록 동성에게 이끌린다는 그 사실 자체로 혼란 속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늘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2.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는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결국 상담자는 내담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상담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은 내담자에게 가치관 개입을 하기 쉽고 지시적이고 훈계적일 수 있다. 그 영향으로 내담자는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3. 내담자는 상담초기에 상담자가 자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청소년들은 동성애에 대한 상담이 아주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칫 아웃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담자가 자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내담자는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때 상담자가 내담자의 그런 모습 또한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할 때 내담자들은 그것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부정적인 모습을 수용, 통합하는 단계에 이른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없애려고만 하는데 상담자는 그 모습 또한 자기 모습의 일부이며 따라서 그 모습을 통합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내가 왜 동성을 좋아하나? 그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돼"가 아니라 "내가 동성을 좋아하고 있구나!"가 되어야 한다.)

2) 긍정적이며 해결 지향적이고 미래에 초점을 뒀야 한다.

1. 내담자와 함께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때 내담자는 머릿속으로 스스로 문제해결의 그림을 형성한다. 상담과정 중에 내담자의 언어가 해결중심적인 언어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내담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커밍아웃에 대한 고민, 미래의 삶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면서 당장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색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2.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둘 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의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면 결국 그 상담은 진행이 어렵다.

3. 해결점에 초점을 둘 때 내담자들은 자신이 잘한 적이 있는 경험들을 다른 경험들과 쉽게 연결하고, 자신들이 자신 있게 느꼈던 때를 찾아낸다. 그 때를 찾아내면서 그런 경험들이 강화된다.

동성애에 대한 고민이나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잘한 적이 있는 경험들을 떠올리게 하여 그들에게 긍정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해결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문제행동을 재정의 한다.

청소년 내담자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행동에 기존과 다른 의미를 준다.

예를 들면 '반항심'을 '독립하려는 의지'로, '욕심과 질투가 많은'을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이나 '끝까지 추구하는 힘이 강한'으로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이다. 커밍아웃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 나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자신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결국 의미의 재정의의 통해 어떠한 상황이나 행동에도 긍정적 의미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내담자의 변화 의지도 높아진다.

4) 문제해결을 위한 이전의 노력들을 인정한다.

1. 내담자들은 상담자를 찾아오기 이전에 다양한 방법, 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버 상담,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나름대로 자기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방법을 시도해보았는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 오기 전에 커밍아웃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보았나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데 어떤 게 도움이 되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나요?”

“커밍아웃을 한 친구에게 어떻게 했나요?”

2. 각 노력들을 열거한 후 그 노력들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3. 그 노력 중에 효과가 있는 것이 있었다면 계속 하게 한다.

4. 이전의 노력이 실패했다라도 그 노력을 통해 얻게 된 점을 재조명한다. 어렵게 친구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가 친구에게 따돌림을 받는 경우에도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된 점도 있을 수 있다.

5. 만약 효과가 없었다면 그것과 다른 것을 시도하게 한다. 대안을 찾을 때 상담자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지 말고 내담자 스스로 찾도록 유도하라.

“○○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일까?”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5) 촉진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로 상담을 한다.

1. 내담자에게 힘을 주는 문장을 쓰도록 한다.

“이렇게 찾아와 상담을 하려는 노력이 대단합니다.”

“정말 힘드시겠네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고민을 나누며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동성을 좋아하는 느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적 정체성은 일생에 한번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탐색을 해봅시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상담을 의뢰하신 것은 참 잘 하셨어요.”

2. 우리가 쓰는 일상용어에는 이성애적인 관점의 용어들 — 이성교제, 혼전 순결, 혼외성교 등이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적합한 용어를 쓰도록 한다. 성관계, 결혼 등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3. 내담자를 비난, 훈계, 혼내는 등 내담자의 말을 끊거나 모든 문제는 내담자에게 있다고 한다거나 답답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한다. 동성애로 고민하는 경우 일반 교사들의 경우 "고칠 수 있다", "그것은 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혼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결국 청소년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4. 특히, 지나친 공감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 오히려 내담자에게 거부감을 주며 신뢰감을 주기 어렵다.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렵다"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는 상담자를 더 신뢰하게 되고 마음을 열고 상담을 하게 된다.

6)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 내담자가 그 문제의 전문가이다.

1. 내담자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내담자들이 상담을 통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방향은 내담자들 스스로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그들 스스로 해결점을 창출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이미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다. 상담자는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2.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문제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신념체계와 생각들을 이해해야 한다.

“○○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 할 수 있을까?”

“○○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니?”

“○○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니?”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 무엇을 해 볼 수 있을까?”



“○○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나?”

7) 문제행동의 기능적인 측면(부수적인 이득들)을 알아야 한다.

1. 내담자들은 자신의 문제행동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에 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수적으로 그가 누릴 수 있는 이득으로 인해 변화를 시도하기를 꺼려하기도 한다. '문제아'로 찍힌 아이가 그 문제행동을 그만 두지 않는 이유 중에는 그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것일지라도 주위로부터 관심을 받기 때문이다.

2. 상담자는 내담자가 문제행동으로 인해 얻게 되는 부수적인 이익들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 때문에 상담을 통한 변화에 저항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수적인 이득으로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관심, 중요한 욕구의 만족, 책임으로부터의 회피, 안정성, 친숙함 등이다.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득을 보는 점은 없나요?”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당신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있나요?”

“이 문제가 있음으로써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나요?”

8) 내담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정한다.

1. 동성애에 대한 혼란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에게는 충분한 대화와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스스로 탐색하며 자신을 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이미 확신을 한 청소년일 경우에는 커밍아웃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을 부정하는 청소년도 있다. 한 두 번의 순간의 감정으로 확신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커밍아웃에 대해 충분한 정보제공이 있어야 하며 자살, 비행 등을 다루어 그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친구나 가족 등이 동성애자라서 상담을 하는 내담자인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동성애는 고칠 수 있거나 고쳐야 하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과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와 께안음이 중요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는지를 알도록 해야 한다.

9) 상담목표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현실 가능하게 세운다.

1. 내담자와 함께 설정하라

내담자들은 스스로 상담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상담목표를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요.”라고 대답한다. 상담목표를 세울 때,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 함께 설정해야 한다.

2. 구체적으로 세워라

추상적이고 애매한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상담을 더 힘 있게 하고 변화를 촉진시키기도 수월하다.

“그 친구하고 좋은 관계가 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그럼 좋은 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의 이런 성격이 싫어요. 성격이 변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을 때

“○○가 바라는 성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커밍아웃을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모님 두 분에게 할 것인지 한 분에게만 할 것인지 등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을 미리 설정하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

3.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측정이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상담자는 현재 이를 수 있는 작은 변화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작은 변화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해야 한다. 너무 먼 미래를 위한 목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목표는 이루기 어렵다.

4. 변화의 득과 실을 탐색하라

목표달성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것과 잃게 될 것을 내담자와 미리 탐색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담자로 하여금 미리 변화의 득과 실을 탐색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할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결정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커밍아웃을 목표로 세웠다 하여 그것만을 위해 상담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커밍아웃을 한 후에 오는 후유증도 미리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득과 실을 따져 내담자가 스스로 힘을 가질 때까지 그 시기를 늦출 필요도 있는 것이다.

10) 할 수 있는 것, 문제에 대한 예외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한다.

1.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때 내담자가 이미 하고 있는 노력과 이미 해본 적이 있는 행동들을 충분히 활용한다.

2. 내담자의 특성과 발달 정도를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직업적,

도덕적인 면 등 여러 측면에서 파악하여 그 중 우수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측면을 활용한다.

3.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해보았거나, 하고 있는 일, 또 문제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찾아서 그것을 변화의 시점으로 삼는다. 의외의 상황에서 내담자들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 문제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찾도록 도와주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한다. 커밍아웃을 원하지 않는데 아웃팅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



외국의 상담의 예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가 운영하는 [엘리스에게 물어봐] (www.goaskalice.com) 사이트에서 발췌한 상담의 한 사례를 보면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고민하며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알기 위해 남·여성과 성경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상담하는 학생에게 "엘리스는 성적인 감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탐구하려는 당신의 의지가 미래의 행복한 삶과 마음의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전한 성적인 실험은 자신의 취향, 열정, 목표, 등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주지요. 당신이 여자와 섹스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환상적이죠.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만 두세요. 남자와 여자 모두와 섹스하는 것을 즐긴다면 행운입니다. 만일 혼란스럽다면 또래 상담, 정신건강상담을 하거나 친구와 친척들과 이야기하면서(다행히 주위에 그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를 계속 탐구하세요. 당신과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탐구하기로 결정했다면 눈과 귀를 열고 그들을 만날 기회를 찾으세요."라고 답변한다. 이 답변에서 "여자와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말해도 전혀 문맥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상담할 때 여자 남자, 이거나 저거나, 이성애나 동성애나 등의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상담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즉 사랑하는 대상을 이성이나 동성이냐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 감정에 중점을 둔다면 상담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사랑은 이성하고만 해야 하고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 양성애자가 아닐까 자문하는 레즈비언

엘리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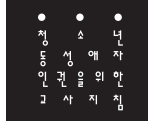
십대였을 때 저는 이성애자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에 다니면서 제가 레즈비언임을 깨달았지요. 저는 레즈비언이라는 성적 정체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만, 가끔 남자에게도 끌려요. 가슴속에서 제가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이 괴로워요! 얼마 전에는 정말 사귀고 싶은 남자를 발견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늘 양성애자는 성생활이 난잡하거나 아니면 그냥 완전히 혼란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특히 장기간의 관계에 있어서) 주로 여자에게 끌리니까 그냥 레즈비언으로 살아야 할까요? 잘 안될 가능성이 많은데도 남자와 사귀는 것이 공정할까요? 제 친구들과 가족에게 양성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일 제가 정말 완전히 혼란스러운 거라면 어떻게 하죠?

- 걱정스런 양성애자 레즈비언 -

걱정스런 양성애자 레즈비언에게

불행히도 양성애자들은 편견과 고정관념(난잡한 성생활이나 성적 정체성의 혼란)에 부딪치지요. 이성애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도 양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다행히도 당신이 당신의 성적 정체성을 깨달은 것은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애의 진실, 즉 양성애가 인간의 성적 정체성이라는 복잡한 세계에서 또 하나의 동등하게 정당한 표현이란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대학에서 레즈비언으로서 커밍아웃 했을 때를 되돌아보세요. 아마 당신이 여자 사귀었다면 어떻게 보일지, 친구들과 가족이 지금까지 당신이 이성애자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 어쩌나 걱정했던 것이 기억날 거예요.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것도 그런 걱정과 비슷하답니다. 동성애자 공동체에서 양성애자들이 부딪



치는 편견을 고려할 때 당신이 걱정하는 것 중 중요한 부분은 당신이 믿어왔던 동성애자 친구들이 양성애자라는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이겠지요. 어떤 면에서 당신은 완전히 커밍아웃하는 것이니까요. 당신이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했을 때, 그건 아마 사회에 존재하는 호모포비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있다는 말이겠지요. 바이포비아, 즉 위에서 말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루는 것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나 당신이 성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요. 사람마다 이성애자나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을 다르게 정의하는 것처럼, 양성애자가 된다는 것은 각 양성애자에게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양성애자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기 시작한 것 같군요.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정확한 방향이 있지는 않아요.

양성애라는 다양한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양성애자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컬럼비아에는 양성애자를 환영하는 여러 모임이 있어요. 퀴어 연합(Queer Alliance) 사이트에 가면 좀더 많은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지역에 산다면 그 지역의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공동체 센터에서 모임과 행사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공동체 센터에서(National Association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ed Community Centers) 웹사이트의 디렉토리에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양성애자 정보센터(Bisexual Resource Center)와 양성애자 정보목록(Bi All Means Resource List)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많은 링크를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시작하기 전부터 성공적인 사례를 의심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을 확신하면서 남자, 여자, 또는 어느 누구든지와 사귀는 것은 공정하지 않겠지요. 당신의 진실한 감정을 부인한다면 당신 자신에게 부당한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제닛 보드(Janet Bode)의 <다른 벽장에서 보는 눈; 여성
의 양성애 탐구 View from Another Closet; Exploring Bisexuality in Women>와 프
리츠 클라인(Fritz Klein)의 <양성에 선택 The Bisexual Option>을 읽어보세요.

상담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1. 개인의 다양한 성적 정체성과 모든 범위의 다양성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긍정적, 개방적)
2. 이성애적 관점에서 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3. 문화적, 심리적, 종교적으로 바라보는 동I양성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4.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합한 표현을 쓰도록 한다.
5. 상담이나 설문조사를 작성할 때 위의 모든 것을 유념해야 한다.
6. 동I양성애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7. 상담자 자신들의 편견과 부정확한 입장이 동I양성애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알아야 한다.
8. 동I양성애자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알아야 한다.
9. 동I양성애 사이트나 상담소, 참고문헌, 책, 등의 정보를 알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 교육 참여와 스스로 정보획득으로 동I양성애에 대해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11.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상담활동과 슈퍼비전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12. 동I양성애 전문 상담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13. 동I양성애자 모임, 지지단체 등에 참여해 그들과 함께 하며 진정 그들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
14. 정치적, 사회적, 법적 제도 등에 대해 잘 알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5. 성교육 시 동I양성애 등 다양성 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16. 동I양성애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17. 이 모든 것에 익숙해지도록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 인터넷사이트

- www.outpridekorea.com 동성애자인권연대
- www.womcenter.org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 www.lgbtpride.or.kr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 www.buddy79.com 섹슈얼리티 웹진 eBUDDY
- www.gaymunhak.com 젠더문학
- www.queerschool.org 청소년이반포털 퀴어스쿨
- www.chingusai.net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www.lsangdam.org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www.kscrc.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참고 도서



- 김비 지음, 『못 생긴 트랜스젠더 김비 이야기』, 오상, 2001
- 김진 지음, 『동성애의 배려 윤리적 고찰』,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 노라 칼린 지음, 심인숙 옮김,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책갈피, 1995
- 노엘 헬릭팩스 지음, 심인숙 옮김, 『동성애자 해방 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책갈피, 1995
- 다니엘 A. 헬미니악 지음, 김강일 옮김,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도서출판 해울, 2003
- 메리언 데인 바우어 외 12인, 베크 언더우드 그림, 조응주 옮김, 『앰 아이 블루?』, 낭기열라, 2005
- 바바라 해머 외 지음, 김경옥, 주진숙 옮김, 『호모 Punk 이반 : 레즈비언, 게이, 퀴어 영화 비평의 이해』, 큰사람, 1999
- 에릭 마커스 지음, 연세대학교 동성애자 모임 컴투게더 옮김, 『커밍아웃』, 박영률출판사, 2000
- 엘리자베트 바렐테 지음, 최석 옮김, 『남자의 여성성에 대한 편견의 역사』, 인바이로넷(주), 2004
- 윤가현 지음, 『동성애의 심리학』, 학지사, 1997
- 젠더문학닷컴 작가들 지음, 『레인보우 아이즈 : 젠더 문학 소설집』, 도서출판 해울, 2005
- 조엘 로스차일드 지음, 공경희 옮김, 『영혼의 시그널』, 한문화, 2000
- 존 콜라핀토 지음, 이은선 옮김, 『타고난 성, 만들어진 성 : 여자로 길러진 남자 이야기』, 바다출판사, 2002
- 존 라이니쉬 등 지음, 이영식 옮김, 『최신 키테이 리포트 : 성, 그것이 알고 싶다』, 하서출판사, 1992
- 진싱 지음, 『신의 실수도 나의 꿈을 막지 못했다』, 중앙M&B, 2001
- 최안드레아 지음, 『터부에서 상식으로의 전환』, 아미출판사, 1997

케빈제닝스역음, 김길남 옮김, 『역사 속의 성적 소수자』, 이연문화, 1999

클린 월슨, 수잔 타이번 지음, 정민 옮김, 『동성애자 해방 운동의 역사: 사슬 끊기』, 연구사, 1998

클로디아카드 지음, 강수영 옮김, 『레즈비언 선택』, 여성학강의6, 인간사랑, 2004

편집부 역음, 『버디(Buddy)』, 1~24호, 도서출판 해울, 1998~2003

폴 러셀 지음, 이현숙 옮김, 『게이 100』, 1, 2권, 사회평론, 1996

하리수 지음, 『이브가 된 아담』, 대산 출판사, 2001

한국인권재단 역음,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인권총서9, 사람생각, 2000

한인섭 외 지음, 『성적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2

홍석천 지음, 『나는 아직도 금지된 사랑에 가슴 설렌다』, J-pub, 2000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고사지침서

펴낸날 | 2005년 11월 25일

펴낸이 | 박강석

기획 · 구성 |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청소년사업팀

책임편집 | 오가람, 김민정

집필 | 김민정, 여기동, 정연희, 송윤옥

해외자료 조사 · 번역 | 송유석

국내자료 조사 | 김민정

편집자문 | 류청규, 박기호, 이민철, 이송희일, 이종현

감수 | 김조광수, 박강석, 박철민, 조한, 최준원

교정 | 이민철, 최준원

일러스트 | 문한균

디자인 | Dmitri

펴낸곳 |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소 | 130-320 서울시 종로구 모동 183번지 모동빌딩 302호

전화 | +82 (0)2 745 7942

팩스 | +82 (0)2 744 7961

이메일 | chingu@chingusai.net

홈페이지 | <http://chingusai.net>

도움주신 분들 | 겸, 광익재, 김지식, 낭기열라 출판사,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서울대학교 이반모임 QIS, 인권실천시민연대, 정율, 제8회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 기획단 및 참가자들, (주)단생각, 차승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재운, 현아

집필자 소개

김민정 - 제7회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 기획위원, 서울대학교 이반모임 QIS 회원

여기동 - 정신과 간호사,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회원

정연희 - 한세전산고등학교 교사, YMCA 성교육교사회 회원,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 성행동의 심리학 강사

송윤옥 - 청소년 상담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자문위원

이 지침서는 국가인권위원회 2005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개발 협력사업에 의한 것이며, 이 지침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